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0년 27호

겨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0년 제27호 겨울



시론 3. 뿌리깊은 나무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임영식 | 15회 부회장

동문회소식 4. 회장단회의
5. 제40주년 중앙 동문 체육대회를 마치고 | 최민규 | 26회 체육이사
8. 2010년도 초도이사회 | 한갑현 | 26회 사무부총장

동기회소식 10. 14회 졸업 40주년 전라도 기행... | 최인환 | 14회
13. 24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양성삼 | 24회
15. 34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후기 | 김보원 | 34회 동기회장

동기별소식 17. 중대 79학번 산행기행문 '갑사에서 동학사까지' | 변옥희 | 27회

별난동문이야기 19. 나사모 동문회 | 김원호 | 49회

약국도움이야기 20.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 나영준 | 47회

총동문회 및 학교소식 24. 약학인생 반세기의 추억 | 김창종 | 11회

문화산책 및 특별기고 26. 13회 동기회 발칸반도 旅行記 | 박동규 | 13회 동기회장
28. 중앙체육대회 26회 출전기 | 윤용혁 | 26회
30. 무興 : 이른아침에 일어난 일 | 허인희 | 4회 명예교수

만평 31. 잠에서 깨어나다 | 김기명 | 18회 편집위원장

32. 2010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33. 회비내역
34. 발전기금 조성 내역
38. 편집후기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0년 12월 27일

발행 :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 윤대봉 | 편집인 : 김기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 전화 : 565-1700 | 팩스 : 564-1701 |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 E-mail : 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 팩스 : (031)955-0159

뿌리깊은 나무는 태풍을 겁내지 않는다

강동구 약사회 회원들의 견기대회에 참석하여 회원들과 조그마한 일자산 산행에서 지난번 “컴퍼스”라 명명된 태풍으로 여기저기 무수히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보며 새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었다.

한결같이 뿌리째 뽑힌 나무들은 뿌리가 얇게 박혀있었던 것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나무로서의 생명을 다함을 보고 느끼는 바가 컸다.

고 임영신 여사의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아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설립된지 어언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예전 인생 60을 환갑이라며 축하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역사가 이 또한 60년을 바라보게끔 길다.

60년이라는 시간속에 재단 또한 세 번을 바꿔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하였으나, 지금 새롭게 약학대학 건물이 신축되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다가오고 있다. 칠천여명의 약사를 배출하여 그 어느 약학대학 보다도 많은 동문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우리 약사들이 몸 담고 있는 약사사회의 수장인 대한약사회장도 적지 않은 동문들이 직무를 수행하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동문들 누구나 가슴깊이 갖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약사직능을 훼손하려는 여러 위기 상황속에서도 앞장서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약사직능 발전에 공헌한 많은 수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약사사회가 흐트러짐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존 20개 약학대학에다 15개 약학대학이 신규로 개설되었다.

향후 지금보다도 많은 숫자의 약사들이 배출되는 5년 후 약사사회는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그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거침없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발전되어 약사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동문들 누구나 동문회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의지가 지금보다는 배가 되어야겠다.



임영식(15회) 부회장

동문회의 행사에 참가하여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로 선배님들과 낮익은 동문들만 눈에 띈다.

60년이라는 전통의 역사에 어울리게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수의 동문들이 참석하면 좋으련만....

무엇이 참석을 막고자 발목을 잡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국적은 바꿀수 있으나 화적은 바꿀수 없다는 진리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이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젊음의 피가 용솨음치는 패기와 용지를 품은 동문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3, 40대 동문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약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되며 동문회의 위상을 한층 더 up-grade시켜야 하는데 앞장 서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지만 뿌리가 튼튼하고 깊으면 아무리 험악한 태풍이라도 당당히 위상을 드러내는 법이라 생각된다. 60년 역사의 전통과 약사사회의 중심축이라는 자긍심을 지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이라면 소심하지말고 대범하게 생각을 전환합시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문회는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 어느 때라도 문호를 두드리자.

제 7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7월 15일 오후 7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1. 회칙개정 의 건
2. 체육대회 준비의 건
9월 12일(일) 테니스대회 / 장소 :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
10월 4일(월) 골프대회 / 장소 : 88CC
10월 10일(일) 체육대회 / 장소 :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

장학기금운영위원회 및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 일 시 : 9월 14일 오전 12시
- 장 소 : 반포 식당원
- 참석자 : 윤대봉 회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김채윤, 유영후, 권혁구 고문, 김대경 학장, 손의동, 최영욱, 이민원 교수, 유대식 사무총장

제 8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9월 28일 오후 7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모교의 날 체육대회 준비의 건

여동문회월례회



- 일 시 : 12월 28일 오전 12시
- 장 소 : 베이징코아
- 안 건 : 1. 여동문의 날 평가의 건
2. 내년도 사업계획(안)의 건
3. 기타 토의사항

제 9차 회장단회의



- 일 시 : 11월 18일 오후 7시
- 장 소 : 동문회관
- 안 건 : 1. 제 40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평가의 건
체육대회 수입 및 지출 보고
2. 초도이사회 준비의 건
일 시 : 2010년 11월 28일(일)
장 소 : 충남 부여(백제문화단지)



“ 제40주년 중약 동문 체육대회를 마치며...”



최민규(26회) 체육이사

〈제 40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체육대회〉가 9월 12일 안산에서 개최된 테니스대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약사회 학술제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작년에 비해 참가자는 조금 줄었지만 40여명의 동문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면서도 선후배의 정을 듬뿍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평소에 같고 닮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 A조 우승은 박홍석(21회), 전상훈(17회), B조 우승은 이상우(26회), 이승현(26회)동문이 차지하였다. 특히 안산동문회(회장 김덕진 27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10월 4일 88CC에서 열린 골프대회는 초반에 비가 내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곧이어 화창한 가을 하늘로 변해 여기저기서 “나이스 샷!”을 소리 높여 외치었다. 서로를 격려하



면서 고수들은 하수들에게 성심껏 지도해주며 승패를 떠난 선후배간의 정겨운 모습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8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결과, 단체전 우승에는 안양지부와 26회 동기회가 차지하였고, 개인전은 이강욱(26회)동문이 77타의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드디어 체육대회가 열리는 대망의 10월 10일, 대회를 앞둔 며칠 전에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당황했지만 모교 대운동장 맨 땅의 흙먼지보다는 중대부중의 인조 잔디구장이 깨끗하면서도 아늑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윤대봉 동문회장님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김대경 약학대학장님의 축사와 함께 격려사가 이어지고, 축시(윤용혁, 26회 동기 회장)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와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여 분위기를 띄우고, 남녀 선수대표(28회 김희식, 32회 허강서)들의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소리가 푸른 하늘로 드높이 솟구쳐 올랐다.

16개 팀이 참가한 족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가 시작되었다. 오전에는 20여 팀이 참가한 팀대항 경기(바둑, 족구, PK차기, 단체 줄넘기)가 열렸고, 오후에는 홀수기와 짝수기로 나눈 청백전 경기(축구, 줄다리기, 이어 달리기)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개막식이 끝나자마자 40주년을 맞이한 체육대회를 축하하는 26회 동기들의 특별 이벤트(200미터 운동장 211바퀴 이어 달리기)가 시작되었다. 선후배 동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함께 동참하여 이어 달리는 모습은 진풍경이었고 경기가 진행되는 하루 종일 200미터 운동장 트랙을 달리는 광경은 감격스럽기까지 하여 많은 동문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참가한 팀 중에는 맛난 먹거리를 협찬하여 모든 동문들이 나누어 먹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운동장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트럼펫과 하모니카 소리는 한껏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선후배는 물론, 평소 찾아뵙지 못한 은사님과 함께 모두가 한데 어울려 회포를 푸는 모습은 가을 운동회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청백전 줄다리기와 이어 달리기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모두들 신이 났고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곧이어 뒤풀이 여흥시간을 장원규(30회)동문의 능숙한 사회로 모든 동문과 가족이 참여하여 간단한 게임과 오락으로 대회를 마무리 하고, 시상과 함께 행운권 추첨을 하였다. 대회 결과, 대망의 종합우승에는 26회 동기회가 차지하였고, 행운권 대상(TV겸용 모니터)은 손의동 전임 학장님이 받았으나 학교에 기증하는 것으로 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를 개최하면서 수고하신 유대식 사무총장, 한갑현, 김정호 사무부총장께 감사를 드리며, 대회진행에 큰 도움을 주

신 박종문(28회), 김보원(34회), 학생회(회장 신상운) 임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물심양면 성원을 보내 주신 제약사 및 타대학 동문회, 그리고 학생처와 교직원 여러분과 동문회 사무실 박은희, 김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치루며 소홀했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았으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성대한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과 자랑스러운 동문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격려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초도이사회

2010년 11월 28일은 중대약대동문회 2010년 전지초도이사회 날이다. 일기예보엔 서울이 영하5도를 비롯하여 한파가 온다. 대약회관 앞 7시30분 출발시간에 맞춰 1회 선배님들부터 28회 후배들까지 부부동반 혹은 친구들끼리 방한복으로 무장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한다. 잠시

늦게 도착하는 동문들을 기다리는 동안 커피를 찾는 선배님들을 위해서 윤대봉 회장님부터 동원이 되어서 선배님들에게 커피 배달 및 접대를 한다.

이제 출발시간이다. 약70여명의 동문들을 태운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곧장 고속도로로 접어든다. 유대식 사무

총장의 간단한 일정소개와 권혁구 고문님을 소개한다. 오늘 방문하는 부여의 문화유적에 대한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국의 수많은 현장답사와 해박한 지식으로 무장된 권혁구 문화유산해설사님(?)의 백제문화의 탄생기, 번성기, 쇠퇴기를 역사적인 사료와 부여, 고구려, 신라와의 관계까지 멋진 설명에 모두다 감탄을 한다. 이렇게 사전 지식을 알고 현장답사를 하면 훨씬 유익한 답사가 아닐까 기대해 본다. 부여에 도착하니 걱정했던 것보다는 날씨가 너무 포근하다. 제일 먼저 반겨주는 분이 이희영 부여군분회장(14회)이다. 본인과 부여에 대한 간단한 소개말씀이 있었다.

제일 처음 답사코스는 최근에 개장한 국내 최초로 삼국시대 백제왕궁(사비궁)을 재현한 백제문화단지이다.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과 역사문화체험을 위해서 사비궁,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체험, 백제역사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사비성의 북소리 등 공연과 널뛰기 등 9가지의 체험프로그램도 있다.



1시간 30분 동안의 관람을 마치고 연일정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우리는 백제의 한을 안고 있는 부소산성을 오른다. 부소산성은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기던 시기인 백제성왕 16년(538년)에 왕궁을 수호하기 위해서 쌓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곳 사비성에서 신라와 당나라에 망할 적에 망해도 짱그리 망해 또렷한 유물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백제의 한은 지금까지 부소산 기슭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부여군의 아름다운 경치 여덟 가지, 곧 부여팔경은 흔히 다른 지방에서 내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 자연물과 어울려 애뜻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이 서린 경치들이다.

“백제탑의 저녁놀, 수북정에서 바라보는 백마강가의 아지랑이, 고란사에서 은은히 들리는 풍경소리, 노을진 부소산에 간간이 뿌리는 가랑비, 낙화암에서 애처로이 우는 소쩍새, 백마강에 고요히 잠긴 달, 구룡평야에 내려앉은 기러기떼, 규암나루에 들어오는 돛단배.” 거의가 백마강과 부소산과 낙화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치들이다.

초입을 지나니 성충·홍수·계백장군, 즉 백제의 3충신을 추모하기 위한 삼충사를 지나면서 잠시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본다. 고즈넉한 초겨울의 아름다운 숲을 따라가니 영일루에서 권고문님의 해설이 이어지고, 다시 숲길을 지나고 골짜기 계단을 내려가니 삼천 궁녀들이 백제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떨어졌다는 낙화암에서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백마강을 쳐다본다. 그리고 고란초를 띄워 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고란사. 고란사나루터에서 구드레나루터로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다. 부소산에 오를 적부터 귓가에 맴돌던 김승기 원곡의 “백마강”이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이어진다. ‘백마강에.....고요한..’

구드레나루터를 거쳐서 부여군청 바로 앞에 있는 부여여성문화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장님의 인사말, 참석하신 내외귀빈 소개, 2010년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장학금액(손동헌명예교수님의 견)에 대하여 재검토요망을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임.

오늘 답사의 마지막 코스인 정림사지로 향한다. 오후가 되니 날씨도 약간 쌀쌀하다. 정림사지5층석탑은 부여정림사터에 세워져 있는 석탑으로 좁고 낮은 1단의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모습의 국보 제9호이다. 신라와의 연합군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당나

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글귀를 이 탑에 남겨 놓아 한때는 ‘평제탑’이라 하기도 하고,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에게 탑이 해체되는 수난을 겪은 백제 수난의 상징적인 탑이다.

바로 옆에 있는 정림사지박물관은 백제의 불교와 관련하여 도입기, 변창기, 일본전래기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과 당시의 백제인들의 생활상, 특히 탑을 만드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재현해 보였다. 역시 권혁구 고문님의 불교관련 해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간혹 들려주던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도자론’에 대하여는 지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약사회를 생각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렇게 2010년 중대약대전지초도이사회 행사는 저녁식사와 손동헌명예교수님의 건배 제의와 함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주일인 관계로 예상보다도 훨씬 힘든 귀가길이었지만 나름의 동문회 발전과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행사는 무사히 잘 마쳤다.

팔순을 바라보는 1회 선배님들을 비롯한 동문들의 “동문사랑”을 향한 열정, 우리 후배들은 오늘도 내일도 본 받아야 할 큰 덕목들이 아닌가 반성해 본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윤대봉회장님, 유대식사무총장님, 김정호사무부총장님, 박은희 간사님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신 모든 동문선후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대약대동문회는 영원히 발전하리라 기대를 해 본다.



제14회 졸업 40주년 전라도 기행...

최인환 (14회 동문)

가을이 깊어가는 10월달 마지막 주말인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14회 약대 동기들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인 1박2일 여행이 시작되었다.

몇달 전부터 사전 현지답사, 참가인원 파악, 권유 등 약대 동문회장단이 세심한 기획하에 준비된 기념행사는 다름아니라 남쪽바다 인근 지역인 순천방향으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30일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하는 여행버스에는 20여명 가까운 남녀 동기들이 승차하게 되었다. 특히 원덕영, 엄정순 동기 약사부부가 참석하여 부러운 눈길을 끌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옛된 티가 가시지 않은 여럿 여자동문들을 대하고보니 학창시절 설렘이었을 마음이 새삼 새롭기도 했다.

곱게 그리고 품위있게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여자동문들이 풍기는 그윽한 분위기 탓도 있겠으나, 나 또한 아직도 젊은 날의 열정이 식지 않았음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리라.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약국업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해 그들의 빈자리가 더없이 서운기도 하였다.

또 한편 이번 여행에 은사님들을 모실 예정이었으나 연로하신 그분들의 건강상 염려 때문에 함께 모시지 못함도 저의 기 유감이었다. 그러나 차후에 따로이 모시기로 예정하고 있다는 회장단의 말을 듣고선 언제든지 은사님들께 反哺之孝하고자 하는 회장단의 마음 씀씀이가 대견스럽기도 하였다. 하여튼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남행을 계속하여 대전 유성에서 남쪽에서 올라온 몇 동문들을 추가 승차시키고 곧장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母岳山 자락에 위치한 전북 유명寺刹인 金山寺에 도착하였다.

금산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 구본산으로 1635년 기록된 金山寺事蹟에 의하면 서기 600년(백제 법왕 2년)에 창건되어 신라 혜공왕 2년(766년)에 진표율사가 중창한 사찰이다.

현 가람은 조선 인조13년 (1535년) 수문대사가 재건하였

고, 우리나라 유일의 삼층불전으로 용화전, 산호전, 장륙전이라 불리는 국보 제62호로 지정된 미륵전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보물 25호 금산사오층석탑(1492 고려 성종 23), 금산사대적광전, 금산사육각다층석탑 등 많은 국보급 불교문화재가 소재한 사찰인 만큼 불교 법사인 김종열 전회장이 참석했더라면 더욱 해박한 불교지식으로 상세하게 설명 안내를 하였겠으나, 시간관계상 급하게 또는 일천한 불교 알음알이로 그 역할을 대신하였으니 참가 동문들께 여간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유서깊은 이곳에 들렀으니 증산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증산교는 인근 원평 일대에서 발상한 종교로 1902년 강일순(姜一淳 1871~1909)에 의해서 제창되었으며, 이 종교는 교조 강일순 사후에 여러 분파가 생겼으나 일반적으로 이 분파된 종단들을 통칭하여 창시자의 호를 따라 증산교라 불리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신도들이 염송하던바 주문 소리에 따라 흠치교라고도 했다.

증산교는 한말 개항기에 나타난 동학대종교(최제우)와 함께 이땅에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불교의 미륵 용화세계와 유사)하고자하는 염원으로 후천개벽사상을 주창한 대표적인 자생적 종교의 하나이다.

또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문화 특히 기존 종교관인 儒佛仙 및 우리 민중의 전통 종교적 사상인 巫俗(巫敎신앙)을 습합 계승하여 한국 민중의 개인적 신앙의식을 민간 중심의 공동체 신앙으로 승화시키려 시도했다고 평가되는 종교로, 일제 강점기 약 2000천만 정도의 인구로 볼 때 그당시 그 신도의 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였다니, 막강한 교세로 보아 일제강점기 당시의 민중의 고통과 그를 벗어나려는 민중의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하였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건대 생각해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이다.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참된 종교로서 성장하지 못한채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민중의 염원 밖으로 표류하던 이 종교는 1938년 조선총독부의 유사종교 해체령이 내려진 이후 교단이 소멸되거나 대부분 여러 명칭의 종교이름을 달고 은밀한 종교적 활동을 지속해 오던 중, 최근에 이르러는 증산도, 대순진리회 등으로 명칭이 고착되어 그 종교사상 전파 등 교세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어 참된 종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금산사 주변 원평 일대에는 증산교 개창과 관련된 몇몇 유적지가 있음에도 일정에 쫓겨어 탐방 및 상세 안내치 못함이 아쉽기도 했다.

이쯤으로 금산사 쪽의 이야기는 끝내기로 하고.....

서둘러 인근에 예약된 식당에 들러 요식업의 대가 김명웅 회장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일품 별미 음식인 육회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일행은 순천만을 향하여 달렸다.

오후 네시경 전국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 갈대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곳을 여직 모르고 있었다니 전국을 싸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나로서는 순천만 갈대 군락지의 장관은 실로 경이였다.

그곳 순천에 거주하며 부근에서 큰 사업을 하시고 있는 현 해경 동문의 안내로 갈대밭 탐방이 시작되었다.

작은 동력선을 타고 수로를 거쳐 바다로 나아가보는 뱃길 순회 탐방 중 승선안내원의 말에 의하면, 그 곳 순천만 갈대군락지는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호수와 같은 만의 광활한 개활지에 자연조성 되어진 지역으로, 현재 갈대숲의 총면적은 약 75만평 정도이며 순천의 위대한 시민들은 토지사업자들의 개발유혹을 물리치고 갈대숲을 큰 훼손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천혜의 갈대군락지를 순천만 갈대축제, 생태관광지로서 보존과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해오고 있는 순천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력과 현명함에 뜨거운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해풍을 타고 가을비가 내리기도 했다 가을비를 맞으며 작은 동력선 뱃전에 기대어 나도 우리 동문들도 갈대꽃만큼은 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언 졸업 40성상을 잘 살아낸 나와 우리 동문들, 빗방울은 갈대밭 뱃길 수면위에 축복의 파문을 떨구고 있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순천만의 또 다른 장관인

해님이 落照는 볼 수 없었으나, 이후 건강한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들러달라는 순천만의 애교라고 위안하며 그때의 감상을 여기에 적어 본다.

順川灣

바람이 내게 와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나
笑而不答입니다

이제 나도
늦가을 하얀 갈대꽃
꽃술에
落日의 황홀한 불빛 기다릴 뿐
어설픈 몸짓조차 지워버렸습니다

고단한 바닷새의 날개
조요히 갈아얹히는
저녁 갈대숲
순천만 이었습니다





순천만에 일말의 아쉬움을 남겨두고 현혜경 동문이 마련해 주신 저녁만찬에 초대되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나온 전라도 향토음식은 전라도 후한 인심만큼 푸짐하고 성대했다 오랜만에 누리는 미각적 호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현혜경 동문의 후의에 감사 드린다. 저녁식사 후 보성만에 위치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장내에 시설된 노래방에서 늦도록 노래도 불러보고 단잠을 이룬 다음날 31일 아침, 이르게 한국茶的 名産地로 알려진 보성 녹차밭 단지를 들렀다.

보성녹차밭은 보성군 회천면 일대의 산지에 조성된 곳으로 한반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기온이 온화하고 근처에 바다가 가까움으로 습도와 기온이 차 재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정시대에 조성된 후 대한다업(주)이 1957년 녹차밭 30만평과 삼나무 등 관상수 식재 7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오늘이 이른 다원이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흰색 녹차꽃과 그 향기를 경험해 보았다.

녹차밭에서의 여자동문들이 전혀 할머니 약사가 아니듯 보이는 것은 순전히 녹차꽃 향기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잘 실아

오신 그분들의 완숙한 체취 때문일 것이다

녹차밭을 일주하며 녹차맛도 보고 녹차도 한 봉지 사들고 이번에는 담양 대나무밭을 향하였다. 대나무밭 녹죽원의 탐방에서 처음으로 왕대밭 대숲길을 거닐어 보았다. 대나무밭에 일어나는 바람소리를 은근히 기대해 보았으나 대숲은 늦가를 깊이로 고요하기만하여 바람소리 한 점 거둘 수 없었다. 한동안 유유히 대나무숲을 완상한 뒤 내년 봄 죽순 오르는 것이나 구경할 참이라고 못다이론 죽림 현자의 꿈을 접고말았다.

이곳 담양에서 현혜경 동문 및 남쪽 몇몇 동문들과 아쉬운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 서울로 향했다. 전라도 지방에서의 눈, 귀, 코, 혀, 몸 등 오감만족에 순천만, 녹차원, 대나무숲에서의 쾌락함으로 육감 만족까지 채우고 돌아오는 여행길이었다.

저녁 늦게 서울 도착으로 끝난 이번 여행은 그야말로 값진 여행이었다.

이 행사를 주관하여 준비하고 진행해 준 윤대봉 약대총동문 회장, 김명웅 동기회장, 정진모 총무 그리고 이번 행사에 거액을 희사한 정도언 일양약품회장, 윤대봉 총동창회장, 김명웅 사장께, 그리고 동기들 모두에게 골고루 선물까지 안겨주시던 현혜경 동문께 모든 동문들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1박 2일 짧은 여행은 끝났으나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화룡점정의 뜻깊은 동기회 모임의 의미를 마음깊이 되새기고자 동기들의 정성을 모아 1000만원의 동문회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레 덧붙인다.





“24회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양성삼(24회)

약대 24회 (76년 입학, 80년 졸업) 동기생들의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2010년 10월 16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준비를 해 왔던 여러 동기들의 많은 관심사 혹은 고민은 과연 모임에 몇 명이나 나올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동기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동기생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모임을 통해서 꾸준하게 만나던 친구들이야 제외하더라도 정말로 30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을 것이고, 특히 실험실이나 서클 혹은 비슷한 학번대의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보다 빈번했던 우리들의 학창생활을 떠올리면 다소 서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 미국, 부산을 비롯한 여러 지방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준 박연철, 양성철, 원정선, 임무호, 조중래 동기들의 참여 속에서 이러한 걱정거리들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비록 사정상 당일 행사 참석은 못하더라도 회비를 보내준 여러 동기생들을 비롯하여 특별 찬조금을내준 김기환, 윤규형, 이규삼, 임무호, 정상수, 조중래,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동기생들, 그리고 특별 찬조상품을 제공해 준 대웅제약 정종근 전무, 건국대 병원 이광섭 약국장, 이 모든 여러 동기생들의 성원속에서 이날의 행사는 이미 시작 전 성공적인 만남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이규삼 현 24회 동기회장으로부터의 환영인사말과 내빈소개로 시작되었고, 김일혁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종갑, 손동현, 이광표, 김기호, 허인희, 임철부 교수님과 김대경 모교 약대학장, 약대 총동문회 윤대봉 회장, 한갑현 사무부총장, 그리고 25회 졸업생을 대표하여 조석현, 임홍기동문 등 여러 내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여러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유명을 달리하신 은사님들과 동기생들에 대하여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가졌습니다. 이어서 은사님들을 대표하여 김종갑 교수님의 격려말씀이 있었으며,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이번

행사가 있기 전까지 동기회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보여 주었던 동기회 1대 회장 함한성, 2대 회장 김승재 동기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이어졌고 무대 앞에만 서면 가슴이 울렁거린다는 박은원 여학생동기로부터 학창생활에 대한 추억과 은사님들에 대한 감사의 말 속에서 아련하지만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때 그 시절 "♪ 명수대 송림 속에 우뚝 선 중앙~♪" 캠퍼스 내 '생각하는 로렝' 동상, '루이스가든',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수업을 들던 '영신관' 등에서의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1부 행사의 마지막으로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24회 동기생들의 작은 정성이 담긴 장학금을 약학대학 총동문회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은사님들과의 단체기념촬영이 끝나고 김승재 동기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만찬과 더불어 30년 뒤로 되돌아가서 학창시절의 추억들과 현재의 근황을 서로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찬 중간 중간 터져 나온 수차례의 건배 제의와 축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규진 동기생 딸의 대금 솔로 연주로 인해 행사 분위기는 더욱더 생기있고 활기가 넘칠 수 있었습니다. 대금 연주가 끝난 후 여러 동기생들로부터 친구(아들?)를 소개시켜준다는 말들과 함께 연주자의 신상명세를 묻는 질문들이 이어짐에 우리는 황규진 동기의 환한 웃음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약업계, 학계, 병원계, 기타 약업계 등으로 나누어 소 그룹별로 진행된 동기들에 대한 사회자의 소개는 여러 동기들이 현재 각자 몸담고 있는 분야와 활약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2부 행사는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야 겨우 끝나게 되어 장기자랑 등 예정된 프로그램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3부 행사에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자리를 옮겨 진행된 비공식 3부 행사에서는 학창시절 유행했던 노래들을 포함하여 최신 유행곡에 이르기까지 참석한 동기생들 모두 한 곡 이상씩 노래를 부르면서 늦은 밤까지 못다한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몰랐던 몇

몇 동기생들의 놀라운 가창력 속에 터져 나왔던 박수소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설레는 마음속에서 다음번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오랜만에 만나본 동기생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세월이 비켜가지 않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우리들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서로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자주 만나자~"는 말과 함께 짧은 시간의 만남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렇게 다음 번 만남을 기약해야 합니다.

이번 졸업기념 행사준비에 앞서서 사실 동기회 모임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진전으로 인해서 이번 행사도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수 차례의 모임은 동기생들의 상조지원 행사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동기생수첩의 제작, 그리고 인터넷 카페 개설로 상시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한 수차례의 준비 모임과 행사준비에 있어서 박관수, 황규진, 이동훈, 여학생 동기들 및 여러 동기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던 동기생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현행 동기회 행사에 덧붙여서 지방에서의 동기회 모임이나 등산, 골프,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기들이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 건강하게 만나자~아자아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4회(76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일시: 2010년 10월 16일 (토)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34기 동기회 졸업20주년 기념식

일시 : 2010년 11월 21일 17:00



34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후기



김보원(34회) 동기회장

86학번이 졸업한지 20년이 되는 날, 여름부터 준비한 친구들과의 20년 만의 만남은 역시 상상 그대로였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마치 어제 만나고 다시 오늘 또 만난 친구마냥, 편하게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5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식장에 들어올 때마다 반가운 웃음과 환호가 끊기지 않는다.

너,,,누구? 너,,,누구 맞지? 하하하~~~

너,,,예전엔 어땠었는데,,,호호호~~~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두가 환한 웃음으로 행사를 마친 것 같아, 준비를 맡은 회장으로서는 더욱 기뻛고, 행사가 끝난 지금도 지난 11월의 일요일을 생각하면,,, 빙그레~~ 미소 지어진다. 아마도 모인 친구들 모두 다 그러했으리라.

학창시절 어렵기만 했던 은사님들을 20년 만에 모시자니 더 어렵게만 느꼈었는데, 막상 만나본 교수님들은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였다. 그냥 보통의 선배들로 느껴질 정도로 중대 약대의 역사며, 최근 생활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편한 분들을 학창시절엔 왜 그리 어려워 도망 다녔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김대경 모교 학장님을 모시고 중대약대의 더 밝은 미래 청사진을 들었고, 윤대봉 동문회장님을 모시고 중대약대 동문의 끈끈한 정을 느꼈으며, 몇 십년 전 부터 내려



중앙약대 동문회보 1기 1호



은 청룡상 트로피 전달식을 위해 참석해준 87학번 회장단도 반갑기 그지 없었다.

교수님들과 모든 친구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마치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떠올리며 포즈를 취할 때, 우리는 40년은 나이를 잊어가고 있었다.

공식행사인 1부, 2부를 마치고 3부가 이어지니,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자리가 이어지고,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과 노래, 제자들의 자기근황 소개와 또 노래와 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가 끝난다고 하니 모두 아쉬워 함에 2차로 옮겨 간 우리 20년 지기들은 그동안 같고 닮은(?) 음주가무를 뽐내며 20년만의 만남을 불태웠다.

20주년 만남을 위해 여름부터 우리의 만남은 분주해졌다. 가장 덥다는 8월부터 9월 10월을 넘어 오며 한 달에 한 번은 모임을 갖고자 하였고, 그렇게 만나고 또 만나니 20년의 공백도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다. 카페가 만들어져 세월의 공백을 메웠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본 행사를 앞두고 카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담하는 중요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책임을 맡은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공간... 그렇게 11월은 훌쩍 다가왔다.

우편 발송 후에 새로 가입하는 친구들이 늘었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한사람 한사람 카페는 점점 더 북적북적 거렸고, 행사를 마쳤어도 시공을 초월해 우리는 86카페에서 매일 매일 만날 것이다.

졸업20주년을 마쳤으니 입학30주년, 졸업30주년, 스무 살 젊은 모습 그대로 40주년, 50주년,,..그렇게 갈 것

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해 아쉽지만, 그 날을 위해 민성일, 백희숙, 전형수, 정성아 총무들 외에도 여러 친구들이 소수로 모이고 있던 각 그룹을 모아주어 더 쉽게 모임이 되지 않았나 싶다. 한미약품 이사로 최고의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준 박인철, 박종우 두 친구에게도 역시 고마움을 표한다.

모든 친구들이 정말 고맙다!



중대 79학번 산행기행문

감사에서 동학사까지

새벽6시 맑은 햇살과 함께 상큼한 기분으로 집 문을 나서고, 아들과 함께 감사로 가는 길은 내내 즐겁고 설레기만 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볼 중대 79학번 동기들...

어떻게 변해 있을 지,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궁금증 반, 오래 동안 보지 못했던 동기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반, 그렇게 반반의 즐거움을 안고 감사로 향하고 대전학봉초교정에서 제일 먼저 경희를 만나게 된다. 교통편이 번거로워 경희의 남편도움으로 하행길(동학사입구)에 차를 두고 감사로 이동하였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다.

20여분쯤 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온다. 영락없는 50대 중반들이었다.

간식을 챙기고 기념촬영을 한 후 우리는 관광파와 산행파로 반씩 나뉘어 출발하였다.

나는 산을 좋아해 산행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느즈막한 가을, 아니 초겨울 이라함이 더 어울릴 지도 모를 정도로 만추 깊은 풍경이었다.

몇 개 남지 않은 어느 사찰의 감나무...

또한 갈색의 옷으로 갈아 입은 이름 모를 풀자락들... 마치 79학번 동기들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갈색의 깊은 멋. 몇 개라도 남아 있는 감. 마치 떨어지지 않았을 때 보다는 더 풍성하고, 귀해 보였다.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서로서로 귀 기울이며 화재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한발 한발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

일행 중 나는 사진을 담당하였다.

폴폴 이마에 땀나는 기조 한 컷, 건강의 대명사두한죽 열의 실천자, 반팔 차림의 성재 한컷, 새침 떼기 같은 아



변옥희 (27회)

줌마 약사 한 컷, 여전히 소녀인 양 재잘대는 경희, 등등

그렇게 수많은 추억을 남기며 우리는 정상에 이르렀다. 계룡산의 정상은 머물기만 하여도 마치 도를 닦는 도사로 변신하기에 안성마춤였다. 자연스레 다듬어진 자연의 비경. 발아래 굽어보는 산 아래 세상 등을 즐기며 싸운 김밥, 과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상주를 즐기며 덕담을 주고 받는다. 가정이야기, 남편이야기, 마누라 이야기, 자식 얘기. 등등 전형적인 50대 초반의 훌륭한 역군였다. 성격들은 예전과 변함없고 모가 없이 다듬어진 점잖은 매너와 인격 그리고 온순한 마음들로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나 떠들었을까. 벌써 하산을 재촉하느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 둘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다. 길은 비교적 완만 하여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남매탐을 지나 동학사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고목 단풍들이 마치 나를 반기듯이 맞아 준다. 올 가을의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진홍색의 물감을 온 나무에 뿌려 놓은 듯이 예쁘지만 하다. 여기서도



서터는 계속 작동되고 있었다. 부부와 함께,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등등등...

우리는 약 400여장의 포토 추억을 남기고 관광팀과의 미팅을 위해 마을로 하산하여 어느 커다란 한우집에 여정을 풀었다. 안주가 나오기 전 이내 술잔은 들고 있었고, 폭탄주 역시 다들 거뜬히 비웠다. 회장 김정호의 관광버스협찬과 인사말,,온라인도매상 오픈 예정인 곱나연이 식대 협찬 있었고, 동기들은 본능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덩달아 얌전한 우리 총무, 흑자운영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 하고 한껏 좋아한다. 그래도 책임 완수는 해야 한다며 회비 각출한다. 이렇게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술잔은 들고, 웃고, 떠들고, 즐기며, 건배, 위하여를 수도 없이 외치는 사이에 시간은 무르익고, 날이 저물어 간다. 우리 동기들은 또 다시 반가움과 추억을 뒤로 하고,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고 차에 올랐다.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은 서로의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서로를 배웅하며 각자의 자리를 향해 출발하였다.

집에 갈때는 올때와 반대였다. 우리가 경희의 집 동네까지 내려다주고 느즈막히 청주에 도착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동기들의 얼굴이 한사람 한사람 지나간다. 어찌 늘 즐거운 일만 있었겠는가? 그래도 멀리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인천에서 청주에서 ..동기들의 변해가는 있는 얼굴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 온 친구들. 어디서 어떻게 하던지 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잘 꾸리고 멋진 삶을 살아 주었으면 하고 기도해 본다.

중약대 79학번 "화이팅"





나사모 동문회



김원호 (49회)
나사모동문회 총무

최근 동문체육대회를 비롯한 여러 동문모임에서 나사모 회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나사모가 뭐예요?”이다. 본래 뜻은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워낙 길어서 우리 회원들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모 회원들은 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험봐서 30대에 약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몇 분은 오래 전 중퇴했다가 복직되신 경우이고 최근에는 편입생들도 많아지고 있다.

회원들은 대부분 현역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들이 우리를 부를때 호칭도 애매하고 대하기를 어려워하고 젊은 교수님들도 우리 회원들보다 나이 어린 경우도 있어 우리에게 존대를 하는 어색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또한 현역학생들같이 동아리나 실험반에 들어가기도 어려워 자칫 이방인이 되기가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학년의 나이든 학생들끼리 모여 다니게 되었고 매년 그 수가 많아지고 2005년 여러 학년이 연합으로 모임을 갖게 되면서 정식으로 나사모 모임이 발족하게 되었다.

학부생 때는 뒤늦게 어려운 약대 공부하느라 동병상련을 느끼며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대부분 약국을 개업하려하기 때문에 먼저 개업한 선배 회원들이 후배 회원들에게 약국에 대한 정보도 주고 조언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발족 초기부터 회원들이 다달이 회비를 모아서 학교와 교수님들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동문회 장학금 수여에 참여하자는 제안이 있어 2006년부터 매학기 나사모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3명의 학생에게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 수는 40명 정도이고, 지도교수는 김창중 교수께서 처음부터 맡아주고 계시며, 백운경약사(약학 73)가 초대회장, 김종달약사(약학 71)의 뒤를 이어 2대회장을 맡고 있다.

정기모임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흑석동 인근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나 영 준 (47회)
한미약품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복제하여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KFDA(식약청)는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및 허가를 위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제도,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내 업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개발비용은 오리지널의 1/10, 개발기간은 1/2인 반면 성공률은 10배 가량 높아 투자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유 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크게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성의약품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계 의약품 시장이 장기간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장

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국 정부의 의료비 및 약제비 억제 정책의 기초 위에 무엇보다 대형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및 출시 감소 때문이다. 이러한 합성 의약품의 성장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합성약품의 복제약은 만들기 쉬워

기존의 합성약품(chemical drug; 대개 분자량 작음)은 화학구조를 기반으로 한 약으로, 합성물질이나 제조방법을 원래의 제품과 다르게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만 같으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없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약식허가만으로 복제약(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과 같은 화학식을 적용하여 탄생한 약)을 개발할 수 있다.

만들기 어려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반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어 동일한 투여 경로 및 성분으로 출시되는 바이오의약품을 말하는데,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의약품으로 백신, 단백질의약품, 항체치료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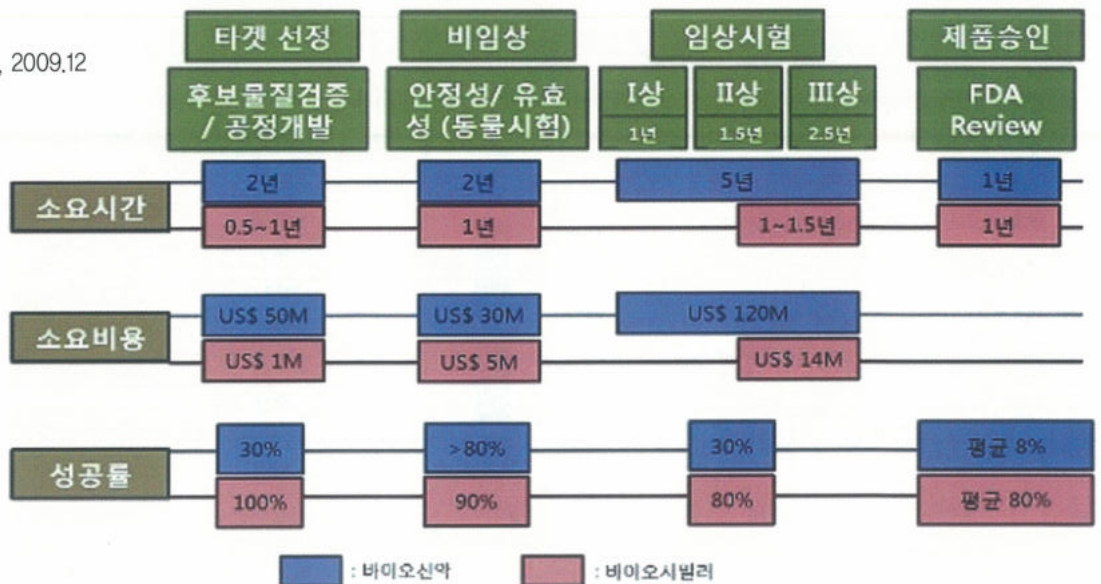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므로 그 구조와 활성은 세포주의 종류와 제조방법 변경에 매우 민감하며, 동일한 제조자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때도 제조방법이 변경된다면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밀러(similar·유사한)라는 명칭이 붙으며, 별도의 임상시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륙별로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EU에서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라는 용어가, 미국에서는 동등생물의약품(follow-on biologics)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정

이러한 바이오시밀러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과 기간을 거쳐 탄생하게 된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바이오의약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2009.12



그림을 봐도 성공률이 있어서 오리지널 바이오신약의 경우 성공률이 8%인 반면 그 복제 약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평균 80%를 나타내고 있으니 적은 개발비용으로 효율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비용면에서의 확실한 차이에 더해 신약의 경우 개발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신약처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하여 약효적 측면에 있어서 TARGET-SPECIFIC하고 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의 장점과 이미 안전성과 약효가 검증된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신약 개발보다 개발, 연구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바이오시밀러에 주목하는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경우 블록버스터급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높은 약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시장에 진입했던 1세대 바이오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만료시점이 임박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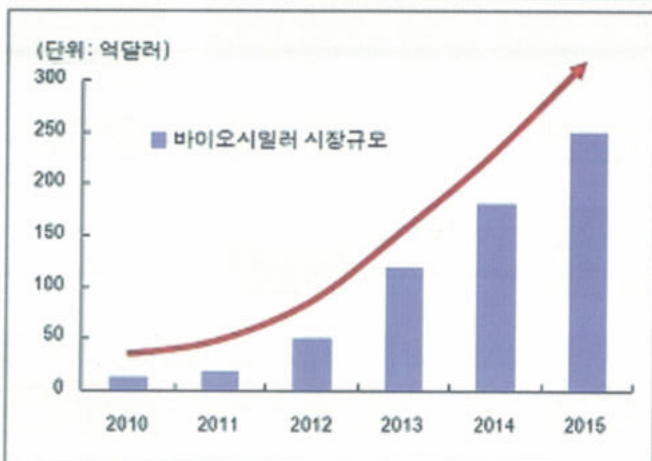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연간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대형 바이오신약의 특허만료가 급증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11년에는 18억달러, 2012년에는 5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미 Frost&Sullivan 전망치).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국내 바이오시장의 수입대체 효과, 시장의 절대적인 성장효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은 erythropoietin, filgrastim, interferon beta-1a, interferon alpha, 인성장호르몬(hGH), 인슐린을 타겟으로 하는 바

바이오시밀러 시장규모



자료: Frost & Sullivan,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바이오의약품 특허만료 현황

제품명	용도	개발사	특허만료
엔브렐	류마티스관절염	암젠	2012년
에포젠	빈혈	암젠	2013년
리미케이드	류마티스관절염	존슨앤존슨	2013년
아보넥스	다발성경화증	바이오젠아이덱	2013년
레비프	다발성경화증	세로노	2013년
코팍손	다발성경화증	테바	2014년
리룩산	비호지킨림프종	제넨텍	2015년
뉴라스타	백혈구개선속진	암젠	2015년
관루스	당뇨병	사노피아켄티스	2015년
뉴라스타	백혈구개선속진	암젠	2015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오시밀러의 성공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단일클론항체(mAb)로 대표되는 항체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항체치료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이 뛰어나며, 전임상 단계에서 성공 여부가 가늠이 되는 개발상의 장점으로 개발 비용도 비교적 낮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 현황

국내 선두주자로는 셀트리온과 LG생명과학이 기술적 우위와 생산능력 확보로 차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설비용량 기준 세계 3위의 단백질 의약품 계약생산업체로서, 글로벌 임상 1상 중인 허셉틴(유방암 치료제)으로 2011년부터 국내 포함 아시아 중남미 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다. LG생명과학은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단백질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인터페론, EPO, G-CSF 등 일부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일정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을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는 오리지널 제조사의 방어, 바이오합성기술에 필요한 초기 대규모 투자, 승인-제조 비용 등이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DNA 조작기술, 대량 발효기술, 고도의 단백질 정제 기술 등 제조 과정의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된 자본구조, 지속적인 장기전략, 임상개발 및 규제 허가관련 전문지식, 생산공정의 핵심 기술 개발, 효과적인 마케팅과 해외진출 등의 요소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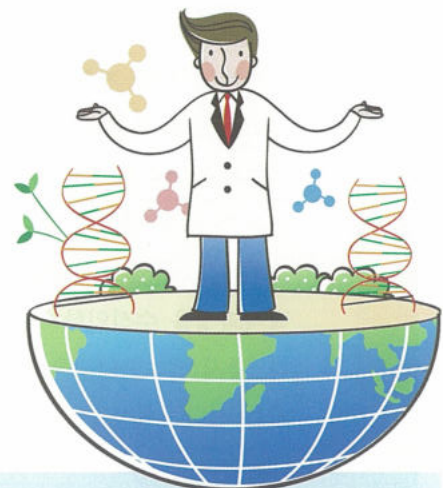
또한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래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기술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래의 바이오시밀러 보다 약효, 안정성, 편의성을 개선시킨 바이오시밀러의 개량신약인 바이오베타나 슈퍼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약품의 경우 자체개발한 기술인 Labscovery(Long Active protein Discovery)을 통해 인체에 존재하는 carrier 단백질에 기존의 유효 단백질을 붙여 반감기를 크게 개선(매일 맞아야하는 주사를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맞아 환자의 복용편의성을 개선)시킨 바이오베타에 대한 연구 및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포화상태의 복제약 시장을 뛰어넘자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들은 합성의약품의 복제약을 통해 이익을 주로 창출하였으나 제네릭의 과잉 경쟁 및 신약의 부재 등으로 국내 제약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성장의 한계에 다다랐다.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약효가 뛰어난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반을 통해 바이오신약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약학인생 70 반세기의 추억



김창중(11회) 교수

나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에 태어나 부모님과 은사님들의 지도로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1967년에 약사가 된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그 해 9월에 조교 발령을 받은 지 만 43년간 교직생활을 해왔으니 반세기 가까이 약학을 공부하였다.

정년퇴임때 109명의 병태생리학 교실 동문들이 발의하여 2010년 9월 4일에 메리오토 호텔에서 정년기념 '병태생리학 교실논문집' 및 문집 '약학인생 반세기' 를 받게 되어 一生一代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충식 동문회장, 유정수 원우회장, 김수중 및 오항영 전임 동문회장들과 더불어 정진모, 조중형, 장용운, 김태두, 강효숙, 이지운 박사 등 병박회 회원들께서 거금 500만원씩 헌금하고, 또 심상수 교수님과 이순교, 유중훈, 최윤석, 정현삼, 최미영, 황연희 등도 분에 넘치게 헌금해 주셨고, 더욱이 친구 서임식 사장과 제자 문희 및 이지운 박사가 양복을 한 벌씩 해 주셨기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나는 약제학 전공으로 1969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71년도에 강사가 된 후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1975년 11월경 한덕룡 학장님께서 세계 여러나라를 둘러보니 약대도 병리학을 배우고 있으니 의과대학에서 병리학을 배워 오면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권고하시어, 이듬해 박사과정을 수석입학하면서 병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약대졸업생은 거의 약국을 경영하면서 경질환 환자를 진단·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었으나, 학부 때 질병에

대하여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에서 연구하며 기초의학과 병리학, 내과학 등을 배웠다. 그래서 약대에서 여러가지 교과목들을 강의하였던 나는 1978년부터 생리해부학을 강의하였고, 1980년에 병리학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병리학 전공자는 해부병리전문의가 되어 조직소견을 보아 진단하는 전문교과목이고, 약학대학의 병리학은 질병으로부터 생기는 병태생리 변화를 보고 약을 어떻게 선택하고 투여하는가를 배우는 학문이다. 따라서 병리학을 "병태생리학"으로 개칭하였고, 그 후 국내 다른 여러 약대에 병태생리학 교수가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에는 대한약학회에 병태생리학 분과회를 창설하였다.

내가 전국약학대학협의회 회장일 때 한약분쟁이 터져 전국 약대 교수 215명의 서명을 받아 한약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었다. 한의사와 한약사 제도가 없는 일본은 최장수 국가가 되어있고, 한의학의 종주국인 중국도 의사에게 한의학을 교육시켜 중서결합(中西結合)의사를 배출하여 의료일원화를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가 약사들에게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발표하여 또 반대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민법과 형법 모두를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변호사면허를 주듯이, 약사도 양약이나 한약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약사면허를 준 것이다"며 신입생부터 적용하면 몰라도 기존 약사에게 다시 시험을 보이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

탈' 이므로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요리를 다니면서 항의하고, 정당에도 찾아다니며 호소하였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성취감과 회한이 교차하는 감회를 느낀다. 그동안 임명된 여러 보직을 맡으면 가만히 힘주고 앉아있는 보직자가 아니라 그 집단을 위해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추진하였다. 약학대학 학장 때 약대 교수정원 5명 증원, IBRD 차관도입과 실험기자재 구입, 파이퍼홀에 겨울철 수도시설을 완비했고, 약대가 파이퍼홀 절반을 쓰던 것을 전체를 약대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장학기금을 모금했다.

학장때 식약청이 생기기 3년 전에 의약식품대학원을 신설하여 초대 및 제4대 원장을 역임하면서 학부에서 배우지 못한 임상약학, 사회약학과 화장품학을 개설하여 교육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50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이때 제1, 2기 입학생중 강희운, 김재수, 김태두, 이광섭, 조중형, 최광훈, 황문상, 함한성 등이 현금하여 강의실, 교학과 및 주임교수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대한약학회 회장 때는 '21세기 약학교육 개선방향'을 발간하였고, 약학회관 건축기금을 모금하여 7000만원을 기금으로 남겨 놓았다. 2002년도에 대통령자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2003년 2월에 6년제 약학교육을 채택하도록 결정하였기에 노무현 정부가 교육법을 개정하여 이명박 정부에 들어 현재 6년제 입학생을 모집하고 내년부터 교육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감개무량한 일이다. 한편 내가 과학기술총연합회 부회장 때 민족화학학술대회 참가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또 제16대 재경순천중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취임하여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하여 성공시켰다.

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과거의 추억들을 정리하여 나를 기억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발자취를 남겨 미완의 일들은 참고자료로 후학들에게 숙제로 넘겨주고 싶어 '약학 인생 반세기'라는 제목으로 문집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을 발간하도록 도와주신 은사 김일혁 교수님과 평론가 이명재 교수님, 선배 서병세 교수님과 서봉한 화백, 벗 주길중과 김미자에 감사드린다. 또한 후배 허형만 시인, 약대 동문회 윤대봉 회장과 심상수 교수, 김기영 약대 18회 동기회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원한 교수께 감사드리고, 출판하는데 협조하여주신 함용현 사장님께 고마움을

표한다.

나는 많은 일을 했지만, 내 돈을 써 가면서 그 집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노력했다. 그 업무를 보면서 그 집단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이 솔선수범했다고 자부하지만, 미완의 일들을 많이 남기게 되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렇게 내 돈을 쓰면서 봉사해왔던 나의 교수생활을 지탱하게 해주고 성장하는데 힘이 되어 주신 내 부모님과 정년을 맞게 지도 편달해 주신 은사님들, 특히 한덕룡, 김일혁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여 교수가 되었고 성장했기에 대한약학회, 약업신문 등에서 현금으로 받은 상금은 모두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헌납하였고, 지금까지 총 1,200만원을 중앙대학교에 헌금하였다. 또 내가 신설한 의약식품대학원 졸업생 505명이 낸 등록금만도 약 100억원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43년간 나를 키워준 중앙대학교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정년퇴임하는 교수라고 자평하고 싶다.

나는 약학박사 10명, 약학석사 42명과 의약식품대학원 약학석사 25명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총 77명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또 122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나, 학회에 발표한 159편의 논문을 투고해 가는 중에 퇴직하게 되어 아쉽지만, 후학들이 완결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우리 중앙대 약대는 내년에 신축건물로 입주하면 연구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교수들께서 내년부터 6년제 약학교육이 시행될 것이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또 많은 연구업적을 축적하여 국내의 35개 약대와 경쟁을 넘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약학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줄 것으로 믿고 싶다.





13회 동기회 발칸반도 旅行記



박 동 규(13회) 동기회장

여행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인가 보다. 13회 동기회 제 4차 해외여행을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거쳐 발칸 반도를 다녀왔다. 2년마다 실시하는 이번 여행에는 동기부부 20명과 박기배(20회, 대한약사회 부회장) 부부를 포함하여 22명이 참여했다.

인천공항에서 11시간 20분의 긴 여정 끝에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이동하여 투숙 후 동유럽 알프스의 최고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의 “만년설빙” 슈트바이 빙하에서 곤돌라 케이블카를 타고 고산정류장 아이스크라트(해발 2900m)를 지나 티롤(해발 3330m)의 정상까지 등정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눈 덮힌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장관이었다. 하산하여 다음 관광지인 해발 3000m의 여러 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인 이태리 북부의 톨로미테로 이동하여 산악케이블카를 타고 험준한 바위산 발푸스테리아를 등정했다.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동기들끼리 모여 국내에서 준비해간 술과 안주로 동기들의 근황, 약국경영, 자녀들의 결혼문제 등을 이야기하다보면 밤 11~12시에야 헤어진다.

다음날 슬로베니아 블레드로 이동하여 호수면에서 100m 높이의 절벽위에 세워져있는 블레드성에 올라 줄리앙 알프스 산지와 블레드 호수가 연출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로 이동하여 투숙 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크로아티아 국립공원 중 가장 아름다운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벨리키슬랍을 비롯한 수많은 물줄기로 연결된 폭포를 관광했다. 마침 눈이 내려 오색 단풍위에 눈이 소복히 쌓여 눈꽃을 이루고 에메랄드 및 호수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와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다음 관광지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시 드브로브니크로 질푸른 바다에 면하여 높이 25m, 길이 2m에 달하는 흰 성벽, 오노푸리안 분수, 스폰자궁과 시계탑, 렉터 궁전을 관광하고, 점심식사 때는 일행 중에 생일을 맞은 분이 있어 즉석에서 케익과 와인으로 축하해 주었다.

드브로브니크 관광을 마치고 마지막 여행지인 중부 달마시아의 황홀한 꽃이라 일컫는 스플릿으로 이동하는 아드리아해의 해변은 지중해에서 가장 깨끗한 바다로 주변 경관이 좋아서 유럽의 최고의 별장지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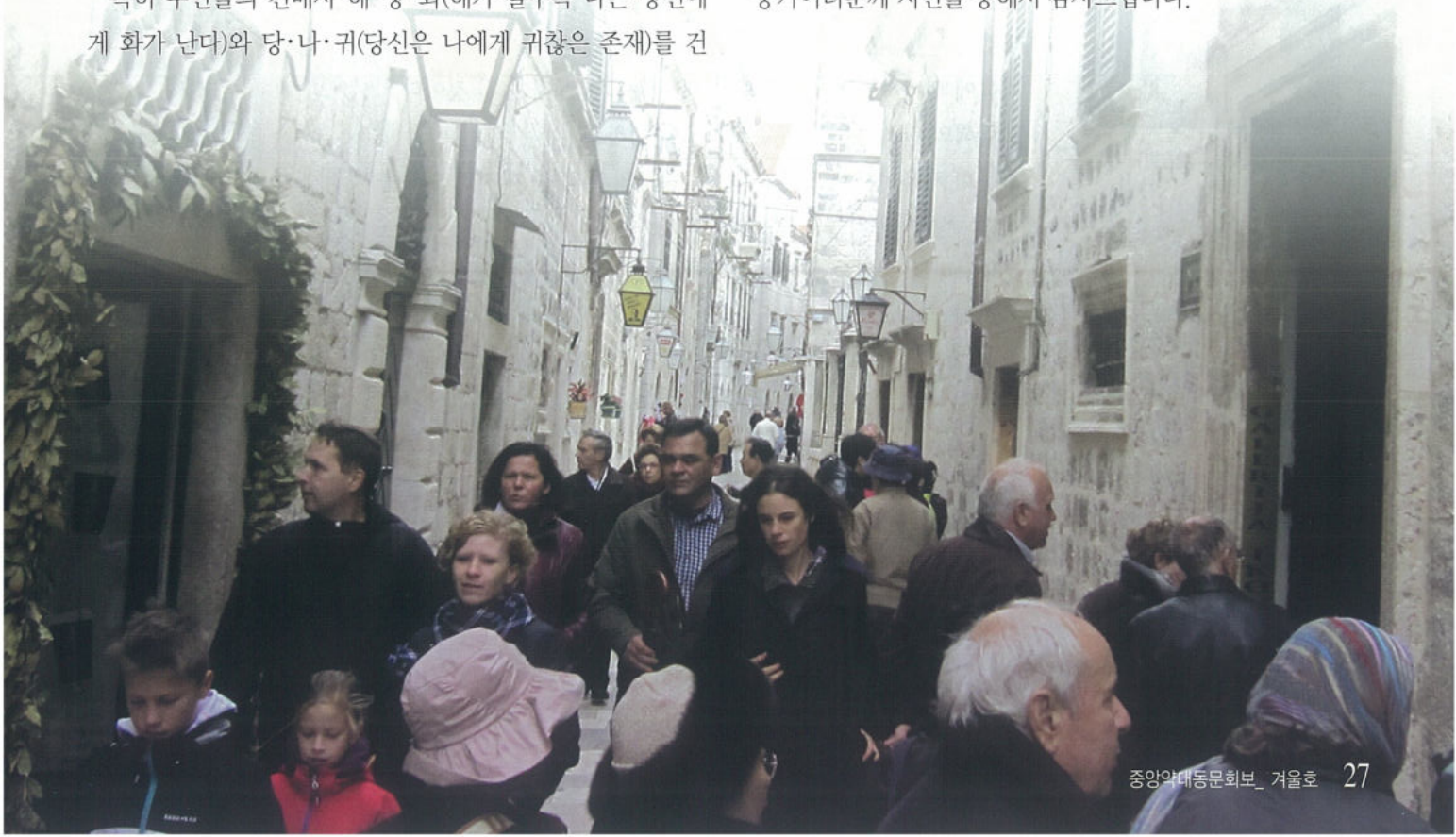
스플릿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 때는 여행의 마지막 밤이어서 회식을 했다. 중국요리와 양주, 죽염청주, 와인, 수정방 등 갖가지 술을 곁들여 2시간동안 화기에애한 가운데 침묵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부인들의 건배사 해·당·화(해가 갈수록 나는 당신에게 화가 난다)와 당·나·귀(당신은 나에게 귀찮은 존재)를 건



배할 때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너무 소란해서 식당주인이 난감해하고, 끝나고 나올 때는 주위 손님들한테 다가온 눈총을 받을 정도였다.

아침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 유산이자 유럽전역에 퍼져있는 로마유적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위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디오클레시안 궁전과 멋진 요트와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항구와 남극적인 분위기의 해변길을 관광하고, 스플릿 공항을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요즘 유럽공항은 알카에다 테러 주의령이 내려 검색이 무척 까다로웠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출발하여 9시간 30분의 여정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무사히 4차 여행을 마치고 2년 후 5차 여행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여행 중에 협조해주신 동기여러분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중약체육대회 26회 출전기

마라톤 풀코스에 맞먹는 운동장 211바퀴 돌기!

사회에는 참 인재로! 모교에는 영광을!



윤 용 혁 (26회)

서슬이 시퍼렇던 유신말기에 78학번으로 입학하여 상아탑의 슬기를 모으던 동기들이 졸업 후 각 지역에 산재하여 우뚝 선 산으로 명성을 떨치다, 시간을 쪼개 중약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중약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안산의 지역사령관출신으로 78동기회 전임회장 최민규 친구의 멋진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 체육대회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동기들이 뜻을 모아 운동장 211바퀴 돌기가 어떻겠냐는... 211바퀴면 정식 마라톤의 풀코스과 거의 맞먹는 거리다.

처음에 의아해하던 친구들도 흔쾌히 동의해 성사가 된 것이다.

노란색의 단체복을 맞추고 모자도 구입하고...

동문회 체육이사로 고군분투하는 친구의 재임 중 마지막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 짓게 하자는 의기투합에 동기들의 협조도 뜨거웠다.

무엇보다도 동기들 중에는 유난히 마라톤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큰 위안이 되었다.

우선 약사로서 최초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인 서브스리를 달성한 친구가 있다. 봉화출신의 선우일원 친구다.

2시간 50분대의 놀라운 기록 보유자다.

준마처럼 근육질의 늘씬한 친구는 그랜드 슬램은 물론 동기들 달리기의 표본이 되어 주었다.

또 그 친구가 있도록 이끌어준 알회장(알콜중독협회장) 김화기 친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소개하는 등 친구들의 마라톤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인천의 박주돈 친구는 조선일보주최 춘천마라톤 등은 물론 큰 대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약사들의 건강다지기과 위상을 돈독히 하며, 특히 청남대에서 열린 울트라마라톤 100기로

미터를 완주한 철인중 철인이다. 대전의 유명한 친구는 이미 90년대에 보스턴마라톤에 출전해 중대약대 출신의 건재함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강릉에 사는 김학철 친구는 사이비 코치를 자칭해가며 올해도 친구들을 경포마라톤대회에 초청해, 초당두부를 먹이고 물심양면으로 친구들을 헤아려 배려하는 선자령의 영원한 벗이다.

선수중 한 명인 의젓하고 소탈한 이영준 친구를 다독이며 이번 운동장 돌기의 주역이자 “보스톤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늘도 동해의 바닷가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을 것이다.

여자동기들도 대단하다. 성정희 친구와 이근주 친구는 평소 요가로 다져진 몸매에 자전거는 물론 마라톤 대회에서도 십키로미터 쯤은 거뜰하게 달린다.

가끔 출전번호표 없이 달려 빠꾸기라는 소리는 들어도 건강 미인들로 이번 운동장 돌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남자동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같이 땀방울을 흘린 멋진 친구들을 어찌 잊을까?

사회에는 참 인재들! 모교에는 영광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그날 달렸고 동문회장 이하 참석한 선후배님들

이 같이 줄달음치며 마지막 결승점에 마음을 모을 때 우리 중약인이 하나라는 사실이 각인되어 순간 온몸이 전율함을 느꼈다. 박수를 치며 응원해준 모든 동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골프에서 77타로 우승한 이강옥 친구는 정말 프로다. 정교한 샷과 숏 게임에서 강점을 보이는 대단한 친구!

승점을 몰아주어 이번 우리 26회가 종합우승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멋진 친구...

참고로 대학시절 바로 옆 실험 짝꿍이었음을 알리고 싶다.

학번 1327882017과 1327882018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리라...

테니스 B조에서 우승한 원주의 이승현 친구와 법무부 산하 교도소에서 약무직으로 활약하는 이상우 친구도 축하해 주고 싶다.

이번 중약체육대회에는 하늘도 도와 전날까지 걱정했던 일기를 말끔히 해소시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만들어 주었고 동문들이 일치단결해 루이스가든의 너나 없는 동지임을 재확인 시켜주는 대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전국의 명산인 중약인이여! 영원하라!



허인회 교수 中英對照



허인회 (4회) 명예교수

白居易(樂天) 七言律詩

부흥 : 이른아침에 일어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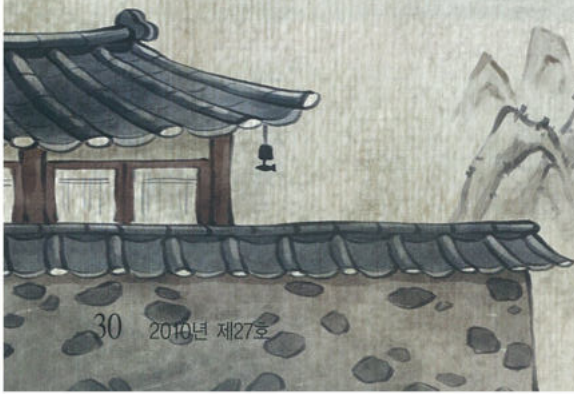
신광출조옥량명(晨光出照屋梁明) 새벽 햇살 나와 집 대들보를 비추네
 초타개문고일성(初打開門鼓一聲) 성문을 여는 첫 북소리 울리네
 견상계면지지습(犬上階眠知地習) 개는 땅이 습한것 알아 계단서 잠자네
 조림창어보청천(鳥臨窗語報晴天) 새들 창가에서 지저기며 갠하늘 알리네
 반소숙주두잉중(半銷宿酒頭仍重) 지난밤술 반쯤깨어 머리 거듭 무겁고
 신탈동의체사경(新脫冬衣體乍輕) 겨울옷 바로 벗으니 몸이 갑자기 가볍네
 수각심공사상진(睡覺心空思想盡) 빈마음으로 잠에 깨어나 모든 생각 사라져
 근래향몽부다성(近來鄉夢不多成) 근래 거의 고향 꿈 꾸지 못하였네



Early Morning Impressions

Dawn sun streams forth, Lighting the beam ends,
 drum that signal the opening of city gates beginning to sound.
 The dog knows the ground is damp, he sleeps on terrace stairs
 birds chatter at the window relaying word of fair skies.

Last night's wine only half dispelled head still groggy, but my body
 feels light
 I've just doffed my winter robes,
 I wake with an empty mind, all thoughts extinguished
 these days it's seldom of my old home.



잠에서 깨어나다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2010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



■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학금명	장학금액	전공	성명	학년
본동문회 (10,000,000)	1,000,000	약학	전인혜	3
	1,000,000	제약학	김혜린	4
	1,000,000	약학	조윤신	4
	1,000,000	약학	박상희	4
	1,000,000	약학	임희정	4
	1,000,000	약학	김지현	4
	1,000,000	제약학	김종민	3
	1,000,000	약학	박소영	3
	1,000,000	약학	장여진	3
	1,000,000	제약학	정영글	3
부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학	남명화	3
안산동문회 (500,000)	500,000	제약학	송은섭	3
여동문회 (1,000,000)	500,000	약학	노지은	3
	500,000	약학	장유정	3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학	정재한	4
나사모동문회 (1,500,000)	1,000,000	약학	양근영	4
	500,000	제약학	이수연	3
한미약품(주)	4,659,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계	19,159,000			



애경사

결혼

5월 30일	선우영환(17회) 이사 자녀결혼
8월 14일	박기배(20회) 이사 자녀결혼
9월 4일	김일혁 명예교수 자녀결혼
10월 30일	윤대봉(14회)회장 자녀결혼
11월 6일	심재웅(12회) 이사 자녀결혼
11월 27일	김미담(19회) 이사 자녀결혼

부음

7월 29일	김일형(2회) 동문 별세
8월 5일	김용욱(3회) 이사 별세
8월 12일	최병철(21회) 동문 빙부상
9월 14일	문옥자(8회) 이사 별세
9월 25일	조중형(18회) 이사 부친상
9월 25일	안재용(26회) 이사 모친상
10월 16일	공인호(23회) 동문 빙부상
10월 23일	박주돈(26회) 동문 부친상
10월 28일	권송상(26회) 동문 빙부상
11월 8일	홍석호(21회) 동문 부친상

회비내역



2010년 4월 22일 ~ 12월 20일

■ 이사회비 (₩120,000)

기수	성명	기수	성명
6	안병한, 안인혁, 임완호, 권영복	18	조중형, 박광숙, 최한규
7	유영후, 정재일, 박명신, 이양헌	20	이신규, 유영래
8	박번일, 조의환, 곽유환	22	차달성, 오황영, 손의동, 이현희
9	박장우, 문영동, 권혁구, 이근배, 김영빈, 박성학, 김홍래	23	박종화
10	변도문, 유정사, 김광일, 이양원	24	윤규형, 정종근, 황규진
11	박상희, 박찬희, 김미자, 최옥출, 고승하	25	조석현
12	박영찬, 김 구, 이호섭, 홍정덕, 이정구, 조택상, 염윤기	26	백낙기, 윤용혁
13	이상길, 문재빈, 이종각, 서국진, 이우식	27	최충식, 김창식, 김경희, 이원일
14	양인승, 김인덕, 홍성철, 박기진, 현수홍, 유효성, 조양연	28	이해룡, 이영주, 김희식
16	백승복	29	서경원
17	선우영환, 김재천	32	전경숙

■ 일반회비 (₩20,000)

기수	성명	기수	성명
1	송주식	24	임무호, 홍용기, 오동근, 이범도, 양성철, 안용태, 최금순, 조종래, 양성삼, 송창근, 김기환, 심영철, 문숙희, 윤규형
5	손규산, 김중무, 이부영, 임맹순, 김원전, 임갑환, 윤재훈, 강희복	25	문태화, 김두수, 이수영, 임홍옥, 김미희, 김완기, 김선열, 이영제, 이명금
6	이만형, 유복상, 김명기, 장지용, 유승균, 이종호, 오세민, 신의명, 김영빈, 김태형, 황선창, 이풍기, 정진석, 홍성호, 박승희, 양현홍, 김태준	26	신현동, 손영상, 최옥숙, 김영후, 최종배, 조병호, 김윤수, 이창훈, 김학철, 성정희, 나종우
7	박승면, 이재석, 손중화, 윤태정, 이형진, 박래식, 이상현, 김경동, 정연홍, 김병익, 조경신, 송정애, 김영환, 배정명, 유종현, 장남수, 유효희, 한경석	27	장영희, 정웅섭, 윤영한, 박현규, 염승호
8	김일래, 유재우, 이능자, 최영자, 엄규중, 정수광, 서동섭, 김형이, 김기중, 최원정, 이성호, 최승치, 신현우, 정재영, 임영숙, 조수현, 홍신표, 정재용	28	김형준, 이병수, 이석원, 김광선, 한성호, 조한근, 이용해
9	최영대, 김학진, 이경주, 박종명, 신우식, 윤경자	29	김종선, 한규인, 장우성, 이성문, 박춘화, 심미선, 민희정, 김현태, 이애진, 안성진
10	심수일, 김명민, 민병창, 이원일, 전광석	30	김규수, 고은숙, 강승역, 조덕희, 조민숙, 강현주, 서정봉
11	안홍신, 강일성, 구자억, 엄장호, 양계창, 이석태, 이기호, 전창환, 최민재, 하만웅	31	오세정, 강상민, 이동익, 김광수, 유영숙, 이정희, 유인숙
12	정규택, 김영호, 박홍식, 유건수, 장석훈, 주성균, 홍정덕, 이종욱, 김대건, 임순성	32	김광복, 김형기, 유귀숙, 채영주, 장인순
13	안상희, 박영준, 김신미, 정만국, 권일순, 전인식, 권일순, 서지영	33	최상집, 이종탁, 최현정
14	이용성, 김갑동, 김동원, 최종택, 김경수, 김진행, 박성호, 박찬임, 김영남, 이병조, 현해경, 우영철, 안태화, 유관희, 김윤국, 구종오	34	김효진, 김종국, 이선우, 김영미, 박상권, 윤덕수
15	경명호, 이명숙, 박태호, 박명배, 오태근, 정육주, 김태영	35	정민식, 김 진
16	김용환, 윤영노, 최정순, 신규연, 홍순경, 이규수	36	장원진, 김영준, 이태경, 김정란, 유복진
17	한형학, 정갑진	37	한덕기, 전상인
18	여운숙, 오윤숙, 육득윤, 이복숙, 임태영	38	한정희, 오향숙, 곽분임
19	백광현, 조안제, 이남석, 배영덕, 남윤수, 장명섭, 송택용, 김동희, 김상좌	39	방근철, 신순옥
20	남덕자, 방금숙, 윤춘수, 임경원, 조진환, 한광식, 김영식	41	김정민
21	어경남, 김성만, 이진배, 송진용, 강성무, 이훈영, 노재하, 장창만	42	김태환, 심은정, 이창경
22	이순명, 정한용, 박동우, 이명수, 정태화, 박인성, 한상훈, 김중공, 김태일, 김광준, 구재호, 민장식	43	김영옥, 남주영
23	최경선, 최병일, 나용태, 양재업, 은성기, 현기훈, 박상진, 한병철, 한치완	44	김은영, 고정봉, 이승준
		46	김윤경, 육성엽
		50	정윤희
		51	장진
		53	정원희



발전기금 조성 내역



발전기금 현황 (2010. 11. 30 까지) **총 37억 5백 6십만원**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역별 통계 (단위 : 만원)

교수 총 27,660 만원

교 내	손의동(1700)	김대경(1500)	황완균(1000)	
	김하형(1000)	심상수(1000)	임채욱(10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창중(900)	황광우(800)	
	손동현(800)	천영진(800)	염정록(700)	
	최형균(700)	이재휘(700)	조사연(700)	
	홍순각(600)	오경택(500)	이도익(500)	
	김홍진(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희(500)	한상범(500)	김종갑(500)	
	타 교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김진학(1000)	제현동(500)	김동석(300)
		오유진(300)	주왕기(300)	임세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김형춘(360)

학생 총 5,350 만원

역대 동문회장단 총 32,900 만원

조의환(11000)	권혁구(1000)	유영후(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박호일(1300)	정재일(500)	이기만·노신희(500)
임상묵(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500)	유정사(10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렬(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5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김명웅(1000)

단체 기부 총 59,490 만원

일동제약주식회사(50000) 중삼친목회(300)
 약대기금(3200) 약품물리화학동문회(1740)
 기업체후원(700) 7회 동기회(500)
 7회 약우회(500) 12회 동문회(500)
 1회 동문회(4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중앙대11회 40주년 기념(300)
 2회 졸업생(200)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64여중회 회원일동(100)
 미주(LA) 3회 동기회(50)

학부모 및 기타 기부 총 60,800 만원

한충강 '02 한인빈 학부모, 300)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100)
 정형식(60,000)
 중앙대 50계단회(대표:정영복) (100)
 오호정(300)

개인·부부 동문 총 242,50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4명	손동헌(800) 홍흥만(300)	이광표(500)	오유진(300)
2회 6명	고두흔·박명자(700) 황인규(300)	홍순각(600) 황재수(200)	김길수(300) 한성순(100)
3회 4명	김용옥(35000) 조영만·이정자(50)	한만우(1000)	김석재(300)
4회 8명	김기호(500) 박노일(300) 해서봉열·나광재(500)	허인회(500) 이연수(300)	김현용(300) 천홍기(300)
5회 4명	이해석·강태일(1000) 정훈교(100)	박명자·고두흔(700)	이승학(300)
6회 13명	임철부(1000) 김중구(300) 안병한(300) 홍병석(300) 이현영(300)	김경희(300) 박정배(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김동열(300) 신정숙(300) 추의호(300) 홍성호(100)
7회 24명	이기황(1150) 김옥남(500) 이기만·노신희(500) 김정웅(300) 박옥규(300) 인고길(300) 한철희(300) 권기동(100)	유영후(1000) 이양현(500) 김영일(300) 김정재(300) 유윤자(300) 임중홍(300) 정연홍(300) 이준중(60)	강승안(500) 정재일(500) 김정부(300) 박명신(300) 이능세(300) 차승현(300) 조경배(300) 이정자·조영만(50)
8회 19명	이백천(1500) 한석원(500) 문옥재(3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임상묵(1000) 최병준(400) 박성애(300) 이조열(300) 주왕기·김희재(300)	김형이(500) 최재욱(300) 박찬수(300) 장영자(300) 허근희(300)

	김홍자(300) 조의환(11000)	배영애(100)	신현우(100)
9회 10명	권혁구(1000) 서황석(500) 박성학(500)	김홍래(1000) 이규진(500+500) 상병준(300)	김영부(500) 노신희·이기만(500) 이근배(100)
10회 13명	방순환(12000) 김광일(500) 조규동(300) 정승수(300) 서정목(300)	박호일(13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정수길(300)	유정사(1000) 정영기(300) 장영조(300) 김삼균(300)
11회 13명	김창종(900) 황공용(500) 민대식(300) 김정길(100) 송병기(100)	정덕호(500) 홍금자·남기택(500) 박상희(300) 최옥출(100)	황문상(5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이철규(50)
12회 24명	박영찬(1000) 심재웅·구옥재(1000) 김 구(1000) 강옥희(500) 노덕재(300) 이정희(300) 김대건(300) 민명임(100)	김용환(1000) 김송배(1000) 이성우(500) 우준하(500) 우홍길(300) 이호섭(300) 문혜성(240) 이원주(100)	최덕구(1000) 황순오(1000) 남기택·홍금재(500) 조택상(500) 염윤기(300) 최병호(300) 최창목(100) 김초성(100)
13회 12명	안병식(1000) 서국진(500) 박동규(300) 김병현(500)	이종각·박종애(500) 조성복·홍순경(500) 윤창현(300) 서효석(300)	문재빈·김애련(500) 김중성(400) 조중목(300) 김신미(10)
14회 8명	김명웅(1000) 윤대봉(500+500) 정진모(300)	정도연(1000) 故이규식(500) 박기진(300)	김종렬(500) 김원순(300)
15회 9명	조찬휘(500) 안민철(300) 구옥자·심재웅(1000)	김용의(300) 이인석(300) 박영경(300)	석대은(300) 위혜주(300) 황인영(300)
16회 13명	강명채(500) 장건(300) 김선기(300) 조기현(300) 권희문(100)	홍순경·조성복(500) 최광식·전순화(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박종애·이종래(500) 김광식(300) 한인희(300) 김성광(100)
17회 12명	김인형(500) 신상직(500) 유종관(300) 정갑진(300)	선우영환·방금숙(500) 김대희(400) 장재인(300) 주완표(300)	김민수(500) 양희익(300) 전상훈(300) 최해광(300)
18회 9명	강응모·생략(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김윤순(500) 조중형(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김애경(300) 남애숙(200)
19회 12명	김경오(500) 권영훈(300) 옥태석(300) 최중숙(300)	권창호(500) 김동희(300) 이경옥(300) 유환성(300)	신성희(500) 박효식(300) 이창욱(300) 권광일(300)
20회 25명	임경원·이현숙(1,000) 정찬현(500) 김홍진(500) 김종갑(300) 송창수(300) 윤춘수(300) 임구래(300) 차재근(300) 김형춘(360)	박기배(600) 이상일(500) 김영섭(330) 송열호(300) 오상동(300) 이신규(300) 정영수(300) 최운환(300)	방금숙·선우영환(500) 김현태(500) 강혜옥(300) 서종원(300) 유영내(300) 이극선(300) 지태현(300) 정영수(300)

21회 28명	이세진(500) 백운경(550) 이병규(500) 이상준(500) 홍종오(500) 한성희(300) 송진용(300) 김병무(300) 김대일(300) 전명선·김민숙(600)	백기홍(500) 박제천(500) 박전희(500) 최병철(500) 김정기(300) 안병헌(300) 이진배(300) 김수배(300) 강성무(300)	이상일(500) 김중호(500) 지기봉(500) 장철숙(100) 김성만(300) 신상길(300) 유승률(300) 어경남(300) 이규섭(300)	김유곤(500) 이영주(500) 김영희(300) 양덕숙(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신길득(300)	고재호(120) 김광선(300) 박우종(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한용문·김미재(300)	김희식·김승재(500) 김미경(300) 안희규(300) 이용해(300) 장원규(300) 조효금(300) 박용석(100) 강대용(300) 손병로(300) 유인석(300) 이철(300)	
22회 19명	손의동(1700) 장상대(500) 이준상(500) 한만영(360) 박동우(300) 최광훈(300) 이상돈(100)	장용운(800) 김홍진(500) 유대식(500) 강희운(300) 전일오(300) 심재호(300) 전명선·김민숙(600)	정진호·강명희(500) 고석순(500) 오황영(400) 김철수(300) 이정석(300) 이영욱(300)	29회 15명 김은진·이재희(500) 강철선(300) 안성진(300) 이종민(300) 장우성(300)	이준(310) 김영재(300) 유종운(300) 서경원(300) 정진호(300)	조순연·방만생(500) 신일균(300) 장부자(300) 최병원(300) 박종진(300)	
23회 19명	박종화(1,050) 공인호(300) 김항만(300) 이승하(300) 임준석(300) 강호영(100) 나용태(300)	권석형(500) 김수중(300) 양재업(300) 이원길(300) 정덕기(300) 이정대(100)	이도익(500) 김영식(300) 정원국(300) 임상규(300) 조근태(300) 박희용(100)	30회 19명 김광식·윤기숙(500) 김미영(300) 김현학(300) 조덕희(300) 황유세(300) 서봉호(100)	이장무·김명희(500) 박복자(300) 이인재(300) 천세영(300) 고석일(300)	조순연·방만생(500) 신일균(300) 장부자(300) 최병원(300) 박종진(300)	
24회 23명	최영욱(1000) 최재윤·김윤경(500) 임무호(500) 오동근(300) 이영주(300) 홍용기(300) 이규삼(100)	윤규형(500) 조중래(500) 함삼균(350) 윤원철(300) 정상수(300) 황규진(300) 김태두(300)	김관식(500) 김승재·김희석(500) 이범도(310) 이광섭(300) 김상현(300) 함한성(300) 윤세형(240)	31회 6명 이현수·임경원(1,000) 변동성(300)	김하형(500) 박건규(50)	김진흥(300)	
25회 15명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500) 고성권(300) 이내홍(300) 최두주(300)	손현우(600) 조석현·임홍욱(500) 김영식(300) 이현수(300) 김춘규(400)	생낙순·강응모(500) 위성건(500) 김희섭(300) 조순현(300) 권세형(300)	32회 7명 고은미(300) 서수경(300) 손수정(200)	박은미(300) 채영주(600)	조양연(300) 서용욱(240)	
26회 19명	심상수(1000) 이창훈·이숙희(500) 김영후(300) 최민규(300) 선우일원(300) 조용백(300)	황완균(1000) 하재일(500) 라종우(300) 문형철(300) 이영준(300) 김학철(300)	한갑현(500) 김안식(400) 진희역(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윤광중(300)	33회 4명 이재휘(700) 박재훈(240)	임희원(300)	강석연(300)	
27회 50명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박수길·이정아(500) 최기선(310) 남상진(300) 안희영(300) 오영돈(300) 이무택(300) 김희식·김승재(500) 김미경(300) 양덕숙(300) 이용해(300) 장원규(300) 신길득(300) 박용석(100)	방만성·조순연(500) 곽순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현기원(300) 최충식(300) 이영주(500) 김영희(300) 조효금(300) 이해룡(300) 전금용(300) 장원규(50)	김영혜·최광배(500) 김정호(300) 변영신(300) 유기조(300) 홍인숙(300) 이선애(100) 김광선(300) 안희규(300) 이병천(300) 임세진(300) 조상오(300) 한용문·김미재(300)	34회 5명 민성철(300) 한일권(300)	배규환(300) 김영미(20) 곽정근(300) 우경아(300) 김용구(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임성호(300) 박선영(200)	
28회 28명	임채욱(1000)	이숙희·이창훈(500)	김윤경·최재윤(500)	35회 3명 황광우(800)	방준석(300) 김학림(100) 박웅석(300) 박양혜(100) 박종호(300)	정지훈(200) 한덕희(100) 조재형(300) 박종혁(300)	
				36회 7명 안영윤(300) 김동석(300) 방극상(50)	한국약품(이병두, 300)		
				37회 6명 정병욱(300) 오상희(100)	김규태(400) 문상희(100)	김중호(100)	
				38회 5명 오경택(500) 제현동(500)			
				39회 4명 민경훈(500) 양성준(100)			
				40회 2명 박성욱(500)			
				41회 1명 구영준(300)			
				42회 1명 이창경(100)			
				43회 3명 신명숙(300)			
				44회 2명 김수길(300)			
				49회 1명 김원호(500)			

■ 지부별 통계 (단위 : 만원)

〈서울강남구 지부 19명〉 방순환(1200), 윤대봉(500+500), 이 준(310), 김현용(300), 박용규(300), 김홍재(300), 정승수(300), 이정희(300), 정진모(300), 이인석(300), 김광식(300), 유대식(500), 황규진(300), 서경원(300), 신명숙(300), 이근배(100), 정훈교(100), 김태두(300), 박성학(500)

〈서울강동구 지부 12명〉 조성복·홍순경(500), 김삼균(300), 김용의(300), 어경남(300), 오동근(300), 강철선(300), 이선우(300), 권준한(300), 안영윤(300), 박용석(300), 조중목(300), 김홍진(500)

〈서울강북, 도봉구 지부 4명〉 심재용·고옥자(1000), 신상직(500), 조상오(300), 조효금(300)

〈서울강서, 양천구 지부 15명〉 유상열(300), 박찬수(300), 민대식(300), 노덕재(300), 박효식(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최두주(300), 이용해(300), 이종민(300), 강대용(300), 임성호(300), 김애경(300), 김영미(20), 김민수(500)

〈서울관악구 지부 7명〉 이기안·노신희(500) 문재인·김애련(500), 김종열(500), 박석동(500), 이상규(300), 안희영(300), 문혜성(240)

〈서울마포구 지부 3명〉 오영돈(300), 양덕숙(300), 장원규(50)

〈서울광진, 성동구 지부 5명〉 양희익(300), 김영식(300), 유승률(300), 권희문(100), 최창목(100)

〈서울구로, 금천구 지부 6명〉 이해석·강태일(1000), 정진호·강명희(500), 김경희(300), 이호섭(300), 이경옥(300), 오상희(100)

〈서울노원구 지부 3명〉 방만성·조소연(500), 이병규(500), 김수길(300)

〈서울동대문구 지부 3명〉 김경오(500), 김종구(300), 신정숙(300)

〈서울동작구 지부 5명〉 고두흔·박명재(700), 이종각·박종애(500), 안병헌(300), 조기현(300), 김영희(300)

〈서울서대문구 지부 5명〉 한석원(500), 정명진(500), 황순오(1000), 유인석(300), 문옥재(300)

〈서울서초구 지부11명〉 황공용(500), 추의호(300), 이능세(300), 장영자(300), 안민철(300), 김기명(300), 박계환(300), 이규삼(100), 이선애(100), 이준장(100), 김광일(500)

〈서울성북구 지부2명〉 조찬휘(500), 유종관(300)

〈서울송파구 지부 8명〉 이규진(500+500), 김원호(500), 한갑현(500), 김영부(500), 위성건(500), 김영일(300), 김미경(300), 진희역(300)

〈서울양천구 지부 1명〉 손수정(200)

〈서울영등포구 지부 6명〉 권혁구(1000), 유정사(1000), 이상일(500), 김대일(300), 전금용(300), 강규태(400)

〈서울용산구 지부 5명〉故이규식(500), 박명신(300), 이조열(300), 배영애(100), 서봉호(100)

〈서울은평구 지부 10명〉 임상목(1000), 윤주섭(300), 정재용(300), 정갑진(300), 선우일원(300), 배규환(300),곽정근(300), 우경애(300), 정병욱(300), 문상희(100)

〈서울종로구 지부 12명〉 황문상(500), 강옥희(500), 최광식·전순희(500), 전상훈(300), 주원표(300), 조중형(300), 임준석(300), 함한성(300), 이해룡(300), 이병천(300), 최면용(300)

〈서울중구 지부 3명〉 박영찬(1000), 조규동(300), 조근태(300)

〈서울중랑구지부 2명〉 한인희(300), 정덕기(300)

〈인천시 지부 26명〉 유명후(1000), 선우영환·방금숙(500), 조석현·임흥옥(500), 박재천(500), 지기봉(500), 신상길(300), 이양현(500), 김대희(400), 장용운(800), 윤춘수(300), 장재인(300), 전명선·김민숙(600), 김수종(300), 김안식(400), 문형철(300), 최병원(300), 김현학(300), 김동희(300), 전명희(300), 김용규(300), 고석일(300), 서용욱(240), 이경숙(50)

〈경기 군포시 지부 1명〉 이영주(500)

〈경기 김포시 지부 1명〉 김종성(400)

〈경기 동두천시 지부 1명〉 최광훈(300)

〈경기 고양시 지부 15명〉 김홍래(1000), 이재희·김은진(500), 박기배(600), 신성희(500), 김준규(400), 함삼균(350), 김수길(300), 이연수(300), 한용문·김미재(300), 홍인숙(300), 박선영(200), 박건규(50), 방극상(50)

〈경기 광명시 지부 16명〉 안병식(1000), 김관식(500), 김형이(500), 최기

선(310), 이송학(300), 인고길(300), 이양원(300), 김병무(300), 공인호(300), 임상규(300), 장부재(300), 고은미(300), 민성철(300), 송진용(300), 박재훈(240), 김중호(100)

〈경기 부천시 지부 6명〉 이창훈·이숙희(500), 김유근(500), 김미영(300), 임희원(300), 고재호(120)

〈경기 성남시 지부 16명〉 김 구(1000), 손현우(600), 김인형(500), 최병호(300), 서종원(300), 강성무(300), 김철수(300), 김한민(300), 윤원철(300), 변영신(300), 서정목(300), 박상희(300), 유기조(300), 변동성(300), 박종호(300), 이영준(300)

〈경기 수원시 지부 22명〉 임경원·이현숙(1000), 김현태(500), 이세진(500), 강응모·상낙순(500), 채영주(600), 김영혜·최명배(500), 김창길(300), 이낙홍(300), 김영후(300), 김영재(300), 홍흥만(300), 김정재(300), 권세형(300), 한일권(300), 이무택(300), 최충식(300), 정연홍(300), 윤영로(200), 신현우(100)

〈경기 시흥 지부 4명〉 조양연(300), 상병준(300), 유종운(300), 장우성(300)

〈경기 안산시 지부 17명〉 김승재·김희식(500), 최재운·김윤경(500), 이범도(310), 김석재(300), 이창욱(300), 박복재(300), 김덕진(300), 오순용(300), 오홍철(300), 이상필(300), 이창오(300), 한봉길(300), 장원규(300), 이현수(300), 서호석(300)

〈경기 구리시 3명〉 최덕구(1000), 황인규(300), 김희섭(300)

〈경기 과천시 1명〉 강희윤(300)

〈경기 안양시 지부 22명〉 정찬현(500), 안병한(300), 박동규(300), 위혜주(300), 최해광(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구래(300), 현기원(300), 박영달(300), 양건모(300), 안희규(300), 안성진(300), 이철(300), 손병로(300), 신일균(300), 김진홍(300), 조용백(300), 민명임(100), 이상돈(100), 아철규(50), 이상준(500)

〈경기파주시 지부 1명〉 권창호(500)

〈경기평택시 지부 8명〉 박수길·이정애(500), 김영섭(330), 김정부(300), 한철희(300), 최운환(300), 양재업(300), 라중우(300)

〈경기 오산시 1명〉 이원길(300)

〈경기 용인시 4명〉 김광식, 윤기숙(500), 조택상(500), 한덕희(100)

〈경기 하남시 2명〉 한성희(300), 이현수(300)

〈경기 화성시 4명〉 송창수(300), 이정석(300), 김정호(300), 이진배(300)

〈경기 포천시 2명〉 차승현(300), 나용태(300)

〈전북지부 1명〉 김종갑(300)

〈울산광역시 1명〉 이정대(100)

〈경북칠곡군 지부 1명〉 유환성(300)

〈경북김천시 지부 6명〉 심재호(300), 최재욱(300), 김성만(300), 김길수(300), 김정기(300), 조경배(300)

〈경북문경시 지부1명〉 이창경(100)

〈경북안동 지부1명〉 임무호(500)

〈경북의성군 1명〉 전일오(300)

〈대구 광역시 7명〉 김용환(1000), 장상대(500), 우준하(500), 김윤순(500), 백기홍(500), 최종숙(300), 남애숙(200)

〈대전시지부 3명〉 이규섭(300), 고석순(500), 홍종오(500)

〈전북 김제시 1명〉 최병준(400)

〈충남 보령시 1명〉 정덕호(550)

〈충남 홍성시 2명〉 조덕희(300), 윤광중(300)

〈충남천안시지부 4명〉 이장우·김영희(500), 김선거(300), 최옥출(100)

〈충남아산시지부 1명〉 백은경(500)

〈충북제천시지부 3명〉 하재일(500), 홍성호(100), 송병기(100)

〈경남 창원시 2명〉 김광선(300), 윤세형(240)

〈경남 밀양시 4명〉 정용국(300), 김대건(300), 박영경(300), 박종진(300)

〈부산시지부 29명〉 이백현(1500), 홍금자·남기탁(500), 조종래(500), 우홍길(300), 김원순(300), 옥태석(300), 강해옥(300), 차재근(300), 송열호(300), 이영주(300), 김상현(300), 백낙기(300), 이종량(300), 남상진(300), 황유세(300), 박은미(300), 김정길(100), 김초성(100), 박용석(100), 강호영(100), 장철숙(200), 권기동(100), 이현영(300), 황인영(300), 김송배(1000), 이원주(100), 허서봉열·나광자(500)

〈제주지부 3명〉 김병현(500), 오환영(400), 박기진(300)

〈강원지부 4명〉 김정웅(300), 이인재(300), 김학철(300), 신길득(300)

〈미주지부 11명〉 이기황(1150), 서황석(500), 김옥남(500), 박성애(300), 조재형(300), 김성광(100), 김학림(100), 이준종(60), 조영만·이정재(50), LA3회 동기회(50)

〈병원 5명〉 이대운(300), 김승업(300), 박찬희(300), 윤창현(300), 이광섭(300)

〈학계 45명〉 손익동(1700), 김대경(1500), 임철부(1000), 김미영(1000), 최영욱(1000), 이민원(1000), 김진학(1000), 황완균(1000), 심상수(1000), 임채욱(1000), 김하형(1000), 김진학(1000), 김창중(900), 황광우(800), 손동현(800), 천

영진(800), 엄정록(700), 최형균(700), 이재휘(700), 조사연(700), 홍순각(600), 이도익(500), 김홍진(500), 이광표(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한상범(500), 김중갑(500), 민경훈(500), 민혜영(500), 김현정(500), 제현동(500), 오경택(500), 오유진(300), 주왕기, 김희재(300), 임세진(300), 권광일(300), 김형춘(36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김동석(300), 정지훈(200), 한성순(100)

〈제약계 및 기업, 공직 49명〉 정형식(60,000), 김용옥(35000), 조의환(11000) 박종화(1050), 한만우(1000), 김명웅(1000), 정도연(1000), 박호일(1300), 윤규형(500), 강승안(500), 권석형(500), 서국진(500), 강명채(500), 이성우(500), 이상일(500), 천홍기(300), 홍병석(300), 장영조(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정영수(300), 지태현(300), 김수배(300), 박동우(300), 이승하(300), 정상수(300), 홍용기(300), 김영식(300), 조순현(300), 정진호(300), 천세영(300), 이병두(300), 구영준(300), 박희용(100), 최병철(500), 김중효(500), 박전희(500), 이상욱(500), 박성욱(500), 이준상(500), 장건(300), 이영욱(300), 방준석(300), 한만영(360), 강석연(300), 서수경(300), 박양혜(100), 양성준(100), 김원호(500)

〈기타 32명〉 학생회(5350), 약대기금(3200), 기업체후원(700), 정재일(500), 동기회(500), 약우회(500), 허근희(300), 권영훈(300), 최만규(300), 91학번친목회(300),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중삼친목회(300), 박노일(300), 임종홍(300), 김동열(300), 한충강(한인빈 학부모)(300), 유윤자(300), 박정배(300), 곽순자(300), 12회동문회(500), 1회동문회(300), 박종혁(300), 오호정(300), 64예중회(100), 중앙대 11회 40주년 기념(300), 김신미(10), 2회 졸업생 일동(200), 약대3기동기회(200), 서울공직중대약우회(200), 송병준(100), 황재수(200), 중앙대 50계단화(정영복)(100)

편집자후기

최근들어.. 주변 이웃사람들의 뜻밖의 사망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는 터에... 아내가.. 가까운.. D 전문 병원에... 위내시경.. 장 내시경.. 검사를 내가 받도록 신청 해 놓고 왔다.

젊은날.. 철부지 시절.. 함부로 몸을 학대해온.. 죄책감에.. 스스로.. 측은한 생각이.. 맴돌았다.

이왕하는것..비 수면으로.. 내.. 몸속을 들여다 보리라.. '아이구..식도가 많이 헐었네..' 역류성 식도염에 대장 용종 하나.. 결과를 통보 받고.. 오 하늘님.. 감사 합니다..

감사 할 일이.. 너무 많다.. 회장님이하.. 동문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임원들.. 공주님 출신하신 박실장.. 오늘이 있기까지 지금도.. 영원한 멘토 황공용 선배.. 좋은글.. 올려주신.. 동문들.. 모두.. 다시한번..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체육대회에 이어 전지이사회까지 회장님 이하 모든 동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기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나이듯 몇몇 뜻있는 동문들의 헌신적인 자세가 회무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임에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있지만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동문들의 차례, 정성이 담긴 일반회비며 발전기금 납부로 뜨겁게 화답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대식(22회) 편집위원

젊은 피가 좋더이다. 직년과 올해 중앙동문 체육대회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역시 젊은 피가 좋더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더 열심히 짜내고, 더더 열심히 연락하고, 더더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들이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만들더이다.

드디어는 올해 마라톤 정규코스에 맞먹는 운동장 21바퀴 돌기를 기어고 성사시킨 모습에 선후배가 하나로 합일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이다.

당연히 동문의 일원이면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기록할 수가 같이 늘어 가는 처지지만, 보소 26기 아우들, 내 잔 한 잔 반세그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밤새 안녕이라 할만큼 지난 해는 국가뿐 아니라 약사사회내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던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자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리베이트 쌍벌제,심아음금약국 운영 등등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로 가득찬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문 선 후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조양원 (32회) 편집위원



지압슬리퍼만으로 관찰을까요?
 써큐란으로 해결하세요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액순환 장애!
 이제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써큐란으로 미리미리 혈액순환을 관리하세요.
 써큐란은 서양산사, 멜리사엽, 은행잎, 마늘유 등의 복합생약성분이 함유되어
 혈액을 잘 돌게 하는 혈액순환개선제입니다.

•용법·용량: 성인 남녀 1일 3회, 1회 1~2캡슐 •효능·효과: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기억력 감퇴, 무기력증, 만성피로, 현기증, 집중력 약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시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기 바랍니다

혈액을 잘 돌게 하는- 써큐란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